KOICA
한국국제협력단

Together KOICA

2019
vol.1

특집

아프리카 르완다
혁신으로 눈부신 비전을 이야기하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1991년 4월 설립된 우리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이카는 전 세계 44개 사무소를 기반으로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 및 국제기구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NGO,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이카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환경·인구·질병·인권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 기관 코이카가 이루어나가겠습니다.

Together
KOICA
2019 vol.1

<Together KOICA>는 코이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식지입니다.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코이카가 전하는 전 세계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Together KOICA>는 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미경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19-01-338
발행일	2019년 9월 5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KOICA 홍보실
제작·인쇄	(주)성우애드컴

코이카 뉴스레터 <Together KOICA>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는 대한민국의 대외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 간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about KOICA

06 코트디부아르 여성들의 말 못하는 고통을 치유하다
코트디부아르 여성 누공 치료 및 예방 사업

08 참혹한 아픔으로 물든 로힝야,
코이카와 함께 희망의 불꽃을 피우다

10 필리핀 농부, 어엿한 농업 기업가로 변신하다
필리핀 파나이섬 고산지대 농촌종합개발사업

12 자카르타 청소년의 무한한 꿈을 응원합니다!
코이카-ADRF '드림센터 프로젝트'

특집 르완다

14 르완다 제노사이드 25주년,
르완다 국민의 통합과 화해를 위한 노력

16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위해 교사들이 수업받는 곳
르완다 직업기술훈련교사연수원

22 혁신으로 눈부신 비전을 이야기하다
ICT혁신센터

26 '비전 2020'을 이끌 과학기술 교육에 창의성을 더하다
아프리카 르완다 배경미 월드프렌즈코리아 코이카 봉사단원

32 '엘리트 체육' 넘어 모두를 위한 체육 교육 환경을 다지다
아프리카 르완다 조혜인 월드프렌즈코리아 코이카 봉사단원

36 아프리카 청년들과 함께 이뤄나가는 꿈의 레스토랑
키자미테이블 엄소희 대표

38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르완다인이 좋아하는 대표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KOICA입니다

40 꿈은 이루어진다!
새내기 사원들의 좌충우돌 입사기

44 행정과 사업 사이의 절묘한 균형 잡기
코이카 감사실

46 가슴 따뜻한 글로벌 인재가 자라날 토양을 다지다
코이카 개발협력인재양성팀

48 국제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

50 개발도상국에 더 큰 미래를 키울 '씨앗'을 선물하는 곳
코이카 연수사업실



info KOICA

52 꽃으로 뒤덮인 폐허
알제리 티파사

56 필리핀의 풍미를 우리 집 식탁에서 즐기다
필리핀 음식 만들기



코트디부아르 여성들의 말 못하는 고통을 치유하다

코트디부아르 여성 누공 치료 및 예방 사업

국제사회에서는 '성평등 달성'이 단순히 여성의 지위 향상뿐 아니라 보편적인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코이카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대소변 새는 질환 '누공', 마녀라 손가락질받는 개도국 여성들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조혼, 할례, 열악한 의료 환경 등 악조건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대표적 모성보건 문제이다. 특히 산과적 누공(fistula, 瘻孔)은 난산으로 태아가 질벽, 방광, 직장, 항문을 오랫동안 누르면서 구멍이 생겨 대소변이 새는 질환으로, 의료보건 체계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발생한다.

매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5만~10만 명의 누공 환자 중 95%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며, 코트디부아르에만 약 8,0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트디부아르 여성들은 12~18세에 조기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여성은 아직 산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난산을 겪을 확률이 높다. 이 외에도 열악한 모성보건 시스템, 가정 분만, 산파에 의한 전통적 출산 방식, 여성 할례 등이 질환의 주된 원인이다. 질환의 특성상 환자들이 질병을 숨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과적 누공을 겪는 여성들의 삶은 비참하다. 누공을 통해 소변과 대변이 수시로 흘러나와 심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공은 외과 시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여성 환자가 평소에 청결하지 않다거나 저주받아 그렇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가정과 지역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빈곤에 빠지게 된다. 환자들은 우울증과 소외감으로 심한 경우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누공으로 고통받는 코트디부아르 여성의 손을 잡다

코이카는 2010년부터 코트디부아르에서 유엔인구기금(UNFPA)*과 협력해 '여성 누공 치료 및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1차 사업을 통해 지역 진료소와 이동 의료시설에서 여성 환자 1,208명에게 무료 수술을 제공했다. 이어 2016년부터 현재 진행중인 2차 사업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치료 여성의 사회복귀,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시설과 의료진 역량 강화,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 성과는 고무적이다. 2017년 12월 기준, 654명의 여성이 산과적 누공 수술을 받았다. 산과적 누공 수술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통계인 '첫 수술로 성공한 누공 환자의 완치율'은 87%이며, '수술받은 환자 중 요실금을 동반하지 않은 완치율'도 92%에 이른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기준인 85%와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치료받은 여성들의 사회복귀 성과도 긍정적이다. 소득 증대 사업에 참여한 여성 315명 중 96%가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지역사회 활동 참여, 학업 재개, 소득 증대 사업 참여 등의 방식으로 사회에 복귀했다.

한편, 코이카는 남편에게 주요 의사결정권이 있는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남편의 태도와 생각이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현지에서 '남편학교'를 운영, 70회에 걸친 수업을 통해 누공 질환과 모성보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으며, 120명의 동료교육자와 80명의 전통 산파도 교육해 지역사회의 행동변화를 촉진했다(2017년 기준). 이 외에도 4개 산과시설의 개보수와 장비 및 소모품 보급, 보건 인력 훈련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여성 인권을 위한 큰 발걸음

거시적인 사업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1차 사업을 계기로 여성 누공 환자 치료와 예방이 국가 모성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2016-2020 국가보건개발계획'에 산과적 누공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전략을 포함시켰다. 또한 2차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여성 누공 환자 치료의 확산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 중이다.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불안과 열악한 사업 환경 등 헤쳐나가야 할 위험 요소가 산재하지만 코이카는 앞으로 코트디부아르 보건부, UNFPA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 : 세계 각국의 인구 및 가족계획 분야 제반 조직과 능력을 향상하고, 성생식 보건 문제의 사회·경제적 및 인권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유엔 산하 전문 기구**

참혹한 아픔으로 물든
로힝야,

코이카와 함께 희망의 불꽃을 피우다

학살과 박해, 갈 곳 잃은 로힝야 난민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북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으로, 세계적으로 220만 명이 살고 있다. 2017년 8월 미얀마에서 로힝야 난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7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으로 유입되었고, 현재 이 지역에는 전체 33개의 임시 캠프와 주거지, 정식 등록된 난민캠프가 있다. 캠프에는 90만 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호스트 커뮤니티와 캠프 구획 밖에 머무는 난민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황폐화한 도시,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들은 기초적인 식량, 위생, 인권 등 다방면에서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이 난민들에게 주 2~3회 식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취사도구와 땔감 부족으로 제공받은 식량을 조리하지 못해 생쌀을 먹거나 설익은 밥을 먹는 일이 허다하다. 난민들은 땔감을 얻기 위해 숲의 나무를 베어갔고, 푸른 나무로 울창하던 콕스바자르 지역은 황폐해졌다.

캠프가 집중적으로 자리한 방글라데시 동남부는 강우량이 많은 곳이다. 땔감 수요로 난민캠프 근처의 산이 황폐화되어,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되는 7~10월에는 식수와 위생 그리고 영양실조와 더불어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숲이 망가지는 것 뿐 아니라 소녀들의 몸과 마음이 황폐화되는 것 역시 큰 문제다. 땔감을 구하기 위해 신발도 없이 맨발로 언덕을 걸어 6~7km 거리를 수 시간 동안 이동하는 로힝야 어린이들은 숲에서 성희롱이나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땔감이 부족한 것이 단순히 식량을 조리하지 못하는 문제뿐 아니라 여성의 안전과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빛을 밝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로힝야 난민을 돕기 위해 코이카가 국제 구호단체인 한국JTS와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WFP 콕스바자르 사무소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동안 로힝야 난민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 중 최대 규모로 난민캠프의 10만 가구에 가스버너를 지원했다. 코이카와 한국JTS는 가스버너 제작과 운송을, WFP는 가스버너 연료 공급과 사용 교육을 맡았다. 여성이 가장인 가구, 한 부모 가정, 장애인과 고령자가 있는 가구 등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배분하였고, 콕스바자르의 식량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WFP가 자체 온라인 식량 지원 관리 시스템(SCOPE)을 기반으로 가스버너를 배분했다.

가스버너가 생기면서 로힝야 난민들은 물을 끓이고 음식을 완전히 조리할 수 있게 되었다. 끓인 물은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조리된 음식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 로힝야의 어린이들은 더 이상 땔감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헤매며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속 황폐화된 로힝야 난민캠프에도 하루 빨리 밝은 빛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필리핀 농부, 어엿한 농업 기업가로 변신하다

필리핀 파나이섬 고산지대 농촌종합개발사업

필리핀은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그 섬 중 여섯 번째로 큰 파나이섬은 총면적 1만1,515km²로, 우리나라 경기도와 비슷한 규모다. 협소한 농지와 잦은 산사태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파나이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코이카가 나섰다.

열악한 환경의 파나이섬에 변화의 바람을

파나이섬 평지에서는 쌀, 사탕수수, 코코야자, 잎담배 등 농산물 재배가 활발하다. 하지만 지리적 고립성이 높은 고산지대는 협소한 농지와 잦은 산사태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농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시설이나 농산물 운송 수단이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간이 화장실은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환경적 원인 외에도 전반적으로 영농기술이 뒤떨어져 있는 탓에 파나이섬은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코이카는 파나이섬 고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 증진,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주민 소득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농촌개발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생 화장실 보급과 지붕·주방·외벽 개선, 식수개발, 주민 개발교육을 실시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안정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2단계 사업에서는 파나이섬 주민들의 소득 증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개발 지원, 마을 내 농업 인프라 구축, 차량 및 농업기계 제공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3단계 사업에서는 최종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 기반을 확충했다. 로컬푸드터미널(LFT)과 로컬푸드센터(LFC)를 기증해 농민들이 '생산자'에서 '농업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파나이섬 토비아스 안티퀘 지역의 농부 로세니오 씨는 "코이카가 기증한 트럭 덕분에 중간상인의 마진 없이 바로 농작물을 로컬푸드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어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 3단계가 완료되면 옥수수, 바나나, 코코넛 등 농산물의 질이 향상돼 현재 가격보다 28% 높은 값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곳 주민 2만여 명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필리핀 농업부는 2018년 8월 해당 사업을 '2018년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필리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필리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자립을 이끌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확대·재생산이 가능한 로컬푸드 육성 신탁기금을 조성해 11개 군청별 금융기관(은행, 협동조합)을 지역 금융기관으로, 1개 금융기관을 기금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로컬푸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원한다. 유통 파트너 및 농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파나이섬 타파즈 지역의 농부 찰리 카스트로 씨는 "다른 대출 회사나 사업가에게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가 매우 높지만 코이카 덕분에 상당히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며 밝은 미소로 말했다.

코이카의 이번 사업은 필리핀 파나이섬 주민들이 품질 좋은 농산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포용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끈 파나이섬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카르타 청소년의
무한한 꿈을 응원합니다!

코이카-ADRF ‘드림센터 프로젝트’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16위를 자랑하지만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심하다. 동남아시아 제1의 대도시인 수도 자카르타 역시 불우한 환경에서 길거리를 떠돌며 생활하는 청소년이 많다. 절망에 빠져가는 인도네시아 청소년을 위해 코이카가 나섰다.

자카르타 청소년에게 자립의 꿈을 선물하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 제1의 대도시임에도 10만여 명의 청소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직업 없이 구걸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카르타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절망 속에 빠져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코이카가 나섰다. 코이카는 자카르타에서 ADRF(아프리카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와 함께 길거리 청소년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드림센터 프로젝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재활센터에서 컴퓨터반과 목공반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자카르타 청소년을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 베테랑 강사들은 오늘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학생들에게 기술을 전수한다.

거리를 전전하며 살아가던 청소년들은 이곳 드림센터에서 직업기술뿐 아니라 사회성도 함께 배우며 커나간다. 처음엔 무엇이든 서툴기만 하던 청소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이윽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드림센터에서 밝은 미래를 그리다

드림센터를 찾아온 150여 명의 청소년이 졸업했다. 드림센터의 졸업생은 드림센터 산하의 사회적 기업인 중고 전자기기 재생센터와 목공예 공장에서 일하거나 현지 기업 등에 90% 이상 취업했다.

올해로 18세가 된 리즈키는 드림센터에서 목공기술을 배웠고, 이제는 어엿한 목수가 되었다.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처럼 목공 장인이 되고 싶다는 야무진 꿈도 갖게 되었다.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는 리즈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받은 것처럼 동생 역시 교육을 통해 멋진 미래를 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

오늘도 드림센터는 분주하다. 꿈을 품은 아이들의 손과 발이 바쁘게 움직인다. 거칠고 투박해 그 쓰임새를 가늠할 수 없던 재료들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담아내는 식탁 위 도마가 되고, 지친 사람을 편히 쉬게 해주는 안락한 의자가 된다.

미래에 대한 꿈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차디찬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카르타의 청소년들은 어느새 환하게 밝은 자신의 미래를 조금씩 그려나가고 있다.





르완다 제노사이드 25주년, 르완다 국민의 통합과 화해를 위한 노력

글 신용기(한국국제협력단 제17기 중장기자문단)



올해는 1994년 4월 아프리카 중부 내륙 국가 르완다에서 최악의 종족 분쟁이 발생해 석 달 만에 약 700만 명의 인구 중 80만 명 이상이 피살된 끔찍한 참사(제노사이드)가 발생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4년 4월 6일 저녁, 종족 간 갈등에 따른 내전을 수습하기 위해 탄자니아에서 개최된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던 하비야리마나 당시 르완다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가 키갈리 국제공항 상공에서 의문의 피격을 받아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대통령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시작된 급진 세력의 소수 종족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 행위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소수 종족의 80%가 피살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국제사회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가운데 당시 반군 세력이 무력으로 집권 세력을 축출함으로써 참사는 100일 만에 수습되었다.

제노사이드 세력이 축출된 이후 르완다는 온건 세력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해 국가 재건에 힘을 기울였고, 정치적 안정이 확보된 1999년에는 국민통합 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 통합과 화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매년 4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를 제노사이드 추모 기간으로 정해 공공장소에서의 가무를 금지하고, 학교, 직장, 마을 단위로 추모 행사를 가진다.

국제사회에서도 UN이 매년 4월 7일을 '르완다 제노사이드 추모일'로 할 것을 결의했고, 세계 각지에서 관련 추모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 키갈리 제노사이드 추모시설과 국립 경기장에서 개최된 25주년 추모 행사에는 인접 국가뿐 아니라 벨기에, 캐나다, 유럽 연합 등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추모 사절로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제노사이드 방지를 위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했다.

필자는 지난해 코이카 중장기 자문단의 일원으로 르완다 국민통합화해위원회에 파견되어 중장기 정책 개발에 자문하는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지난 1년간 르완다 국민통합화해위원회에서 보고 들은 제노사이드 치유를 위한 르완다 국민의 노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수의 국제 조사단이 하비야리마나 대통령 탑승 비행기 피격 사건을 조사했으나 배후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다만, 대량학살을 계획하고 집행한 세력을 재판하기 위한 르완다 국제형사법정이 탄자니아 아류사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해 93명을 기소하고 62명에게 형을 선고했다. 르완다 국내에서도 제노사이드 가담자를 재판하기 위해 가차차 법정을 설립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약 200만 건을 처리했다.

르완다 국민은 제노사이드의 아픔을 딛고 국가 재건에 힘쓴 결과, 지난 20여 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사회 분야 발전을 이룩하였고, 반부패 및 거버넌스 부문에서도 아프리카의 모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성평등 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해 9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원의원 80명 중 49명(61%)의 여성의원이 선출됐다.

국민통합화해위원회는 국민 통합과 화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르완다 화해 바로미터(Rwanda Reconciliation Barometer)'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7년에 발간된 보고서(RRB 2015)에 따르면 르완다 국민의 화해 지수는 92.5%로 2010년 조사 당시(82.3%)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내면에 위치한 마음의 상처를 점수로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통합과 화해를 위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르완다 국민이 제노사이드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25년이 지난 오늘에도 선진 국가들의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뿐 아니라 국제평화·화해·제노사이드 등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NGO, 학자, 학생들이 르완다의 사례를 연구하고 치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이 칼슨 전 스웨덴 총리 및 전 나이지리아 군사령관과 함께 1999년 UN 르완다 독립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르완다를 아프리카 지역 주요 개발협력 대상국의 하나로 선정하고 교육, 농촌, ICT 부문에서 다양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NGO도 빈곤해소, 보건,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코이카 봉사단원을 비롯한 수십 명의 봉사단원이 각지에서 르완다 국민의 제노사이드 아픔을 치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르완다 국민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눈처럼 녹고, 르완다가 진정으로 '천개의 언덕'에 자리한 '아프리카의 스위스'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위해 교사들이 수업받는 곳

르완다 직업기술훈련교사연수원

미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화가와 미술 교사 중 그림 그리는 법은 누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싹틔우기 위해 가르치는 일은 사실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기술 분야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르완다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가 없어 전기 수리 기술자가 직접 전기 과목을 수업했다. 이론 교육이나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당연하다.

글 김은아 **사진** 한상무

Rwanda TVET Trainer Institute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

2017년 11월, 코이카는 르완다 정부 교육부와 협력해 새로운 르완다 직업 역량 강화 훈련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교사들의 교수법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교육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시도였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기술, 직업 교육, 트레이닝'을 일컫는 직업 기술 교육 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TVET)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 르완다의 노동시장 구조에 적합하도록 역량 항목을 세분화해 품질을 개선하는 일을 진행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4,800여 명에 달하는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평가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니, 정보통신 활용 능력이나 영어 구사력 항목도 점수가 결코 높지 않았지만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학은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여러 평가 항목 중에서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소프트 스킬'에 해당하는 것 즉,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 영어 구사력,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모듈화해 TVET 자격 제도 커리큘럼으로 구성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TVET 프로그램 컨설팅을 총괄한 윤영준 프로젝트 매니저의 TVET 자격 제도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다.





동료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고 있는 TVET 퍼실리에이터 윌슨 하레리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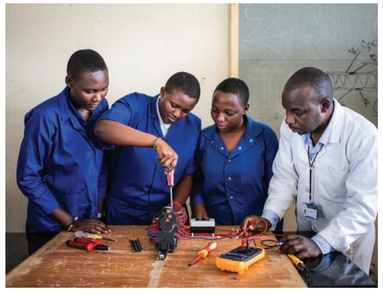
'교사들의 교사' TVET 트레이너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2018년 4월 르완다 최초의 직업기술훈련교사연수원(Rwanda TVET Trainer Institute, 이하 RTTI)이 문을 열면서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RTTI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TVET 자격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 중 우수 인원을 선발해 다른 교사를 트레이닝하는 TVET 트레이너 자격증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르완다 전체 교사 수의 절반가량인 2,000명이 넘는 교사가 6개월 과정의 TVET 교사 자격 코스를 연수했다.

일명 '교사들의 교사'로 불리는 TVET 트레이너가 되면, 기존에 해오던 교사로서의 업무를 지속하는 동시에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수법을 수업하기도 하고, 트레이너 과정을 수료하려는 또 다른 교사의 참관 수업에 평가위원으로 나서기도 한다.







체계적인 수업이 가져다준 달라진 교실의 풍경

키갈리에서 남동쪽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도시 냔자에 위치한 냔자 기술학교의 매니징 디렉터이자 교장인 레오나르도 마니람보나 씨는 TVET 프로그램을 반기는 대표적 인물이다.

마니람보나 교장이 이끄는 냔자 기술학교는 한국의 기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2005년 설립 이래 건설, 가정용·산업용 전기, 자동차 엔진, 웰딩, 태양에너지, 인테리어 디자인, 텔레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직업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6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이 학교의 교사 34명 중 18명이 TVET 수료 교사다.

그 중 윌슨 하레리마나 씨는 학교의 전기 과목 교사인 동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TVET 트레이너 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냔자 기술학교에서 교사들의 교사로서 그들의 수업 전달력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퍼실리에이터'로 일하고 있다.

과거 전기 수리사 출신인 그는 종종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참관 수업이 필요할 때면 평가자로 참여해 도움을 주고, 이러한 추가적 업무는 그에게 본업 외 수당을 제공해 또 다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기도 한다.

"TVET을 알기 전의 수업은 제 지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방식이었어요. 트레이닝 이후에는 어떻게 수업 준비를 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지, 무엇이 좋은 수업인지를 알게 됐죠. 수동적이던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낍니다."

TVET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학교 교실이나 자재 등의 물리적인 수업 도구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무형의 소프트 스킬이 없으면 진정한 학습이 완성될 수 없음을 인지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르완다 정부는 향후 RTTI를 통해 인증된 교사만 정식 교사로 임용하고, 기존 교사 중에서도 RTTI 인증을 받지 못한 이들은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RTTI가 강조하는 교수법의 방법론과 가치에 한 번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







혁신으로 눈부신 비전을 이야기하다

ICT혁신센터

르완다에는 어떤 '스타트업'이 있을까? 혁신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전 세계적 스타트업 열풍, 르완다도 예외가 아니다. 2020년까지 르완다를 중진국 수준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인 '비전 2020'에 있어 정보통신기술(ICT)이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것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ICT 분야를 국가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 발전과 혁신의 기폭제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르완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르완다 정부와의 협력 아래 IC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발판을 모색하며 수도 키갈리에 ICT혁신센터를 열었다. 글 김은아 사진 한상무

ICT혁신센터는 한국 정부가 르완다 정부와 한국의 혁신 사업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맺은 파트너십의 결과이다. 특히 교육이나 관광, 모바일게임, 엔터테인먼트, 음악이나 비디오그래피 등 크리에이티브업계에 대한 지원과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기관이 하는 일은 크게 신규 스타트업을 양성하고(인큐베이팅), 육성하는(엑셀러레이팅) 업무로 나뉜다.

르완다의 인터넷 이용자 규모는 2017년 3월 기준 약 458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들이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환경은 모바일이 85.5%, 유선이 14.5%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ICT혁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모바일 게이밍,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멀티미디어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르완다의 플랫폼별 인터넷 이용률(2017년 3월 기준)

구분	이용자 수(명)	점유율
모바일	3,921,207	85.53%
유선	663,258	14.47%
전체	4,584,465	100.00%

출처: RURA(2017)

키갈리 중심가에 위치한 ICT혁신센터는 2개 동과 중앙 정원으로 이루어진 신식 건물로, 최신 미디어, 오디오 장비가 구비된 다수의 제작실과 회의실, 수업 공간을 비롯해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업무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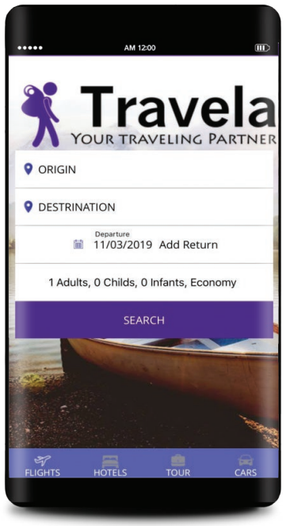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기존 기업은 물론 창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부터 실무 트레이닝, 장비 및 사무실 제공, 펀딩 유치까지 사업을 하기 위한 전 과정을 전폭 지원한다.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인 센터는 현재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나 창업 지원가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컨설팅, 멀티미디어 강좌 등을 제공하고 있고, 스타트업을 선발해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센터에 입주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온라인 스트리밍 콘텐츠 회사 '자추 TV'와 여행 및 숙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회사 '디트래블'이 있다. 자추 TV CEO 릴리안 앙가비레와 디트래블 창업자이자 CEO 노스탈지 파트리스는 모두 올해로 23세의 젊은 기업가들이다.

자추 TV는 르완다에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1월에 본격 서비스를 론칭한 이들은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이미 6,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으며, 800여 편이 넘는 아프리카 지역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고 있다. 자추 TV는 본래 영상 프로덕션을 꾸리던 영상 전문가가 모여 창업한 회사로, 그들은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동시에 르완다와 주변 국가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가공하고 큐레이션하는 업무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체 제작을 위한 프로덕션 전 과정 또한 센터 내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자추 TV 유튜브 배너



디트래블 사용 화면

디트래블은 우리에게 익숙한 익스피디아나 호텔스닷컴을 접목한 스타트업으로, 5개월간의 준비 끝에 지난 3월 론칭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로컬 비즈니스를 활성시키는 매개자의 역할. 5월 중순 기준으로 키갈리 내 96개 호텔과 예약 시스템을 체결했고, 하루 평균 1,500여 명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며, 20여 건의 서비스 주문을 받고 있다. 두 회사 모두 6~10명 규모의 풀타임 직원이 ICT혁신센터에서 제공한 사무실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는 동시에, 온라인 콘텐츠 기반의 업무 특성상 다수의 제작과 콘텐츠 기획을 하는 전 세계 크리에이터와 함께 일하고 있다.

릴리안 앙가비레는 “이전에는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없었는데, 센터가 들어선 뒤 최신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업무 공간을 제공해주니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특히 아이디어와 열정만 넘치던 시점을 넘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비디오를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비롯해 이를 위한 펀딩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한편, 중국에서 테크니컬 소프트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노스탈지 파트리스는 “나는 이미 프로그래밍 기술을 갖고 있었으나 비즈니스로 연결하기 위한 마케팅이나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식은 전무했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제로 구축해 운영하는 데 함께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라고 센터에 입주한 소감을 밝힌다.

ICT혁신센터의 최종 목표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세운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창업에 성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

ICT혁신센터의 트레이닝을 총괄하는 헤드 인스트럭터 게리숑 무네제로는 트레이닝 세션이 종료된 후에도 그들에 대한 지원은 끝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비



자추 TV CEO 릴리안 앙가비레(왼쪽)와
디트래블 창업자 & CEO 노스탈지 파트리스



ICT혁신센터 헤드 인스트럭터
게리숑 무네제로

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산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디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재정 지원은 물론 분야별 다양한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를 증진해 스타트업이 커가는 데 있어 꼼꼼한 팔로업을 진행합니다.”

르완다의 전반적인 ICT 수준은 전 세계 하위 1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선 통신 기반은 취약한 한편 이동통신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과거에 한국이 겪어온 정보화 발전 과정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가 겪었듯 피처폰, 폴더폰, 스마트폰 등 단계별 발전 과정을 거치는 대신 모든 기기와 기술이 한 공간에 뒤섞여 있는 것이다.

르완다 정부는 아프리카의 ICT 허브를 자처하며, 휴대폰 보급과 광섬유망 설치,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테라컴, 모토로라에 대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E-정부’라고 표현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달의 혼재 속에서 ICT혁신센터는 크리에이티브를 앞세운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비전 2020’을 이끌 과학기술 교육에 창의성을 더하다

아프리카 르완다 배경미 월드프렌즈코리아 코이카 봉사단원

르완다는 미래 주요 성장 동력으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내걸었다.
르완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경미 월드프렌즈코리아 코이카 봉사단원은
과학과 기술 수업을 보조하는 교사를 넘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글 김은아 **사진** 한상무



르완다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아프리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서쪽으로 50km가량 달리면 나오는 도시 무항가. 지난 5월 7일, 무항가의 세인트 마리-르네 카부가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새로 개설된 교내 과학실 현판기념식 행사가 열렸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 끝에 박수와 함께 전교생 앞에 선 이는 바로 코이카 배경미 단원. ‘스텔라’로 통하는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학생들은 큰 환영의 박수로 그를 맞았다. 키냐루완다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현지 교사의 모습으로 장소와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세인트 마리-르네 카부가이는 코이카 전임 단원 3명이 컴퓨터실과 체육관 등의 현장 사업을 진행한 학교로, 학생들에게 코이카 봉사단원은 이미 익숙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로운 과학 실험실도 2016년 12월 이곳에 과학 교사로 파견된 배경미 단원이 적극 추진한 사업 결과다. 배경미 단원은 ICT 친화적인 실험실 환경 구축을 목표로 기존 과학 실험을 보수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생물 실험실을 새로이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존에 있던 3개 교실을 실험 수업과 IT 친화적 수업이 가능한 실험실로 개조했고, 소음 감소를 위한 천장, 지붕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기자재 사용을 위한 전기 설치부터 실험 수업을 위한 테이블과 수도, 싱크대 설치, 고정형 프로젝터와 스크린, 화이트보드 설치 등 실질적인 학습 환경을 개선할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새로운 흐름의 물길을 내다

르완다의 국가 비전을 명시한 ‘비전 2020’은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 르완다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해왔다. 이 선언은 르완다를 ‘지식 기술과 혁신을 창안하고 전파할 수 있는 현대 국가’로 규정하고 특히 ‘ICT 분야에서 우수한 수준의 중심’이 될 것을 이야기한다. 르완다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천연 광물 자원을 대신할 성장 동력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꼽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2015년 새롭게 발표된 교과과정은 기존의 일방



66
르완다 교육부에서 발행한
과학 커리큘럼에 맞춰 교사들에게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과학 실험을 하는 과학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9

적인 지식 주입 기반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해내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 교사 또한 모델, 차트, 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실험을 앞세우는 수업 방식을 구축할 니즈가 있었고, 이번 과학실도 결국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구현할 대전제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햇수로 4년째 르완다에서 활동 중인 배경미 단원은 한국에서 생명과학, 생물교육, 사회복지학을 두루 공부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다. 그는 실험실이라는 하드웨어 정비뿐 아니라 방과 후 과학 클럽 활동을 이끌거나 동화책 제작 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돌보는 일에도 흥미를 느끼고 있다. 다음은 배경미 단원에게서 듣는 일문일답.

Q 어떤 계기로 해외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개인의 전문 분야를 살려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을 고등학교 시절부터 눈여겨봐왔습니다. 그 시절엔 막연히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사회복지 등의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던 중 문득 인터넷을 통해 코이카를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업무는 없을 것이라 여겼던 고등학생 시절의 막연함은 성인이 되어 쌓아온 과학 분야의 전공 지식, 교사로서의 경험과 접목되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와 과학교육이었는데,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저는 과학 교육을 지원했고, 지금 여기 르완다에 와 있습니다.

Q 한국과 르완다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좋은 점은 일단은 미세먼지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후한 차량에서 나오는 검은 매연이 있지만, 연일 한국에서 들려오는 미세먼지 공포에 비할까 싶습니다.(웃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날씨입니다. 흔히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라는 편견이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은 고도



1,880m로 햇볕이 강한 날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내에서 가벼운 겉옷을 걸쳐야 하고 밤에는 춥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위조차 불쾌하고 끈적한 더위가 아니랍니다.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음식입니다. 르완다에는 여느 나라에 있는 한인 마트가 없어서 한국 음식을 만들 기본 재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Q 현재 지원하고 계신 학교는 어디이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세인트 마리-르네 카부가이 중·고등학교는 1993년에 개교해 3개의 O레벨(Senior 1~3)과 3개의 A레벨(Senior 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 화학, 수학, 생물학, 컴퓨터 과학, 경제학, 지리학 중 세 과목씩 선택적으로 구성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 파견돼 얼마간은 수업 참관을 하고 학교 분위기를 익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르완다 교육부에서 발행한 과학 커리큘럼을 통해 르완다 정부가 지향하는 과학 교육의 목표를 찾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모델, 차트 및 인터넷, 비디오,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ICT 시설을 이용한 적절한 교재를 개발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 40시간 수업하는 교사들로서는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 교육 자료를 찾아 과목별, 학년별, 단원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교사들에게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학생들을 만난다기보다 과학 교사의 수업 요청이 있을 때 함께 수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또 수요일 방과 후에 있는 과학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 도

구나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과학 실험 위주로 진행합니다.

Q 한국 전래동화 <별주부전>을 현지어와 영어로 소개했다고 들었습니다.

르완다에는 청소년은 물론 아동을 위한 읽을거리가 부족합니다. 출판된 대부분의 동화책도 단순한 이야기 구조나 위생 등 기본 생활 수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파견된 국제개발 전문 봉사단원(3기) 입국 동기 2명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가 직접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만한 동화책을 만들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르완다는 내륙 지방이라 바다가 없고, 호수는 많지만 교통 사정이 열악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호수를 본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여 자연스럽게 <별주부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동화책 개발팀이 있어 내용 감수 및 오지 학교 도서 배포를 맡기고, 현지 출판사와 연계해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현지 기업과 국제기구 코이카를 연계한 사업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Q 동화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동화책을 만들어 출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어로 인형극을 만들어 단원들이 직접 출연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형극과 더불어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다 풍경이 담긴 영상과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고 르완다 노래와 한국 노래를 불러주는 작은 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현지 아이들이 동물의 의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과 바다를 경험해보지 못한 탓에 바다 생물을 알지 못하고, 다양한 물고기를 가리키는 단어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출판업계는 현재 질 좋은 콘텐츠를 개발 중이고, 자체 생산할 장비와 인력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기에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Q 르완다에 오기 전과 지금, 어떤 변화가 있나요?

국내 교육을 받는 동안은 르완다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 설렘 그리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시간 이상의 비행 끝에 내가 살던 곳과 정반대의 대륙에 와야 한다는 것, 영어가 공용어이긴 하지만 전혀 새로운 키냐루완다어를 써야 한다는 것 등. 해외여행도 서른이 넘어 겨우 두 번 정도밖에 해본 적 없는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엘리트 체육’ 넘어 모두를 위한 체육 교육 환경을 다지다

아프리카 르완다 조혜인 월드프렌즈코리아 코이카 봉사단원

르완다에서의 체육 교육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 선택 과목이자 보조 과목으로 분류된다. 문화·클럽·종교 활동과 함께 주당 1시간만 할당하는 정도다. 이른바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에 투자가 집중되는 게 현실이다. 르완다 무항가의 세인트 조셉 카부가이 중·고등학교에 파견된 조혜인 월드프렌즈코리아 코이카 봉사단원은 교과목으로서 체육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 TV를 통해 막연히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온 그는 전공인 체육에 ‘봉사’와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의 꿈을 더해 현실에 뿌리내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 김은아 사진 한상무

Q 르완다에 파견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진행하고 있는 현장 사업 마무리와 업무 정리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언어 학습이나 보고서 작성 등을 하고 학교에 출근했다가 식사를 위해 점심시간에 잠시 귀가한 뒤 오후에 다시 출근합니다. 저녁 시간은 대부분 자유롭게 보내는 편이에요.

Q 현재 지원하고 계신 학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세인트 조셉 카부가이는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공립학교이고, 전원 기숙생활을 합니다. 가톨릭 재단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르완다에서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사도 학생도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큰 편이에요. 전교생은 750여 명, 교사는 30여 명이고요, 중학교에 해당하는 S1~S3 학년은 각 2개 학급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S4~S6 학년은 각각 4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학업뿐 아니라 스포츠 명문으로도 유명합니다.

Q 조혜인 단원님이 맡은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제 업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규 체육 수업과 방과 후 활동입니다. 정규 수업은 S1~S6 전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 반에 평균 55명 정도이고 체육 수업은 두 학급이 함께 진행하기에 한 번에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8시간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 후 주 4회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하는데요, 저는 전공인 배드민턴 동아리를 신설해 주 4회 1시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명의 남학생과 함께하고 있어요. 기관 파견 초기에는 교내 배구팀 대회에 함께 참여해 의료 지원도 했습니다.

Q 르완다의 체육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르완다는 보통 학교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구분되어 있고, 엘리트 체육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몇몇 학교가 운동부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교과목으로서 학교 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체육 교육이 운영될 만한 장소나 물품,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부분 사람이 체육은 특별한 소수를 위한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조혜인 단원이 세운 체육 커리큘럼은 어떤 것인가요?

전체 교육과정 중에 체육 교육에 할애된 시간은 적고 인원은 많아 물품이나 장소가 한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지금까지 생각해온 방안은 종목의 기술이나 세부 규칙을 수업 내용으로 하기보다는 게임이

나 반 대항 경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무엇보다도 최대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Q 최근에는 체육기자재 창고와 체력단련실 건립 등 현장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압니다.

네, 약 두 달 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요, 교내 학생들과 특히 학생 선수들이 사용할 체력단련실을 건축하는 동시에 체육 수업에 도움이 될 체육 물품 보관소를 만드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르완다 문화체육부에서 발표한 르완다스포츠개발정책에 따르면, 스포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정부부처, 지방정부, 스포츠 관련 협회, 학교, 군부대, 경찰기관 차원 등에서 2020년까지 달성할 '7개년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중 저는 주요 당면 과제 중 하나인 제한된 스포츠 기반 시설, 스포츠 개발에 대한 전략 부족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에 주력해 현장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학기 운동장 공사로 인해 학교 외부의 열악한 임시 공간을 활용했는데, 체육 수업을 진행할 새로운 운동장 부지를 선정하고 가꾸는 일부터 이곳에 체육 기자재 창고와 체력단련실을 신축하는 일을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설을 활용해 수업을 할 교사에 대한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체육 교과 커리큘럼과 지도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모든 교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학년에 권장되는 체육 활동에 대해 영어로 지도안을 제시해 2019년도 하반기부터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 활동을 해오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방과 후 배드민턴 클럽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올해 3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전국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를테면, 그동안 학교에서 훈련할 때는 서로 장난만 치고 이기려고만 하는 모습이었는데 대회에서 경기하는 동안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다행히 그날 좋은 성적을 거둬,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수도 키갈리에 들러 평소 아이들이 구경하고 싶어 한 유명 건물과 미국 대사관 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그날 처음 본 아이가 많았죠. 전국 대회를 함께하며 단순히 어떤 운동의 기술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의미 있는 경험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Q 르완다 파견 이전에 우간다에서 5개월간 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다시 르완다로 해외봉사를 떠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나중에 커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계기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 대학 시절, 월드프렌즈 청년중기봉사단에 합류해 우간다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사랑을 주러 왔다가 오히려 받고 돌아간다'는 말의 뜻을 깨달았고, '봉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시점에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중, 다시 한번 해외봉사를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간다에서의 5개월이 너무 짧고 아쉬웠거든요. 자연스레 우간다와 문화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해 같은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르완다를 지원했고요.



Q 르완다에 오기 전의 걱정이나 우려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처음 한두 달은 르완다를 우간다와 비교하며 실망하고, 르완다에서 자꾸만 우간다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기도 했어요.(웃음) 지금은 점점 르완다만의 매력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있을 때 길거리 강도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르완다에 오기 전에도 걱정을 하고 지레 겁을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르완다에서 지내 보니 '매우매우 매우' 안전한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르듯이 아무리 인접한 이웃 국가여도 서로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걸 알았죠.

Q 끝으로 미래에 파견될 단원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한국 음식은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후회하지 않을 거 같아요. 한국으로 휴가를 가면 캐리어에 알차게 꽉꽉 채워올 예정입니다.(웃음) 한국에서 즐겨 하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져오는 것도 추천해요. 현지에서 여가 시간이 많이 생길뿐더러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활동과 관련해서는 역시 아무리 잘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언어 공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르완다는 생각보다 매우 추워요. 아프리카는 무조건 더울 거라는 건 편견입니다. 따뜻한 옷도 많이 준비해 오면 좋을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해외봉사 2년 동안의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오시길 바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청년들과 함께 이뤄나가는 꿈의 레스토랑

키자미테이블 엄소희 대표

‘키자미(Kijami)’는 동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사회적인(social)’이라는 의미다. 아프리카 땅에 연 소셜 레스토랑 ‘키자미테이블’. 키자미테이블은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사회적 기업으로서 아프리카 청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

글 강나은 **사진** 한상무 **사진 제공** 엄소희

오랜 아픔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피워내다

르완다는 실업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994년에 르완다에서 일어난 제노사이드를 꼽을 수 있다. 제노사이드 이후 르완다 정부와 국민은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많은 청년이 배움의 기회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자랐다. 키자미테이블이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 중 르완다를 선택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직원을 구할 때 구인 공고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한 명, 두 명 이력서를 가지고 왔는데, 공사가 끝날 때쯤 되니 100장이 넘는 이력서가 쌓여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발품을 팔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할 정도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슬기로운 방법

키자미테이블의 엄소희 공동대표가 르완다에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한 데에는 해외봉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 비영리단체의 공정무역 분야에서 일하던 그녀는 개발도상국에 관심이 생겨 해외봉사에 나섰다. 수많은 나라 중 아프리카를 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중간 평가가 2008년도에 있었어요. 빈곤 해소나 기아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아프리카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고, ‘왜 아프리카는 유독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한 수치 상의 기록이나 평가 의견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호기심 반, 경험에 대한 욕심 반이었죠.”

처음 NGO를 통해 케냐에서 1년, 두 번째로 코이카 봉사단으로 카메룬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 대표는 아프리카 청년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들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한 청년들은 대학교 졸업 후 단 한 명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한 엄 대표는 무언가 두고 온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제가 현장에서 쌓은 3년의 경험을 경험으로만 묻어두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만난 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죠.”

그렇게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교육을 받다가 르완다에서 3년 동안 요리 선생님으로 활동한 류현정 대표를 알게 되었다. 둘은 2016년 5월에 만나 준비 기간만 2년을 거쳤고, 드디어 2018년 9월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매장을 오픈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계를 만나다

2018년 9월 매장을 오픈한 뒤 현재까지 키자미테이블에는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직원 4명을 더 고용했고, 지금까지 15명의 청년이 키자미테이블에서 함께 학습하고 성장해나가며 꿈을 이뤄가고 있다. 창업에도, 아프리카 청년들의 취업에도 성공한 엄소희 대표는 코이카에서 한 봉사활동으로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단언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봉사를 적극 추천하는 편이에요. 한국에서 정보를 찾거나 새로운 것을 고민하는 데는 환경적 한계가 있는데, 해외봉사를 하면 국가 간 벽을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해외봉사는 새로운 기회를 준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내가 활동하는 분야나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 기간 동안 접하는 생각이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봉사단을 경험하신 분, 앞으로 경험하실 분이 이 경험을 통해 각자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르완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음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코이카 봉사단원 출신인 엄소희, 류현정 대표가 2018년 9월 르완다 키갈리에 문을 연 사회적 기업 '키자미테이블'을 찾아가보았다. 아프리카 현지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이니만큼 현지인의 입맛을 대변할 수 있을 터. 키자미테이블의 시프리앙 셰프가 추천하는 대표 메뉴 세 가지를 맛봤다.

글 김은아 **사진** 한상무 **진행** 키자미테이블

불닭만큼 매력적인 매콤 치킨
필리필리 치킨

아프리카 중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즐겨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필리필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널리 쓰는 매콤한 고추를 일컫는다. 영어로 표현하면 '아프리카식 매콤 치킨' 정도. 다진 마늘과 허브, 소금, 후추로 닭고기를 밑간해 냉장고에서 숙성한 뒤 기름에 튀긴다. 남아공식 필리필리 치킨은 물, 다진 마늘, 식초, 토마토 페이스트, 파프리카, 후추, 생강 등을 넣고 닭과 소스를 함께 끓여 새콤한 맛이 두드러지는 반면, 키자미테이블에서는 매콤한 맛을 좀 더 강조하고 식초 대신 꿀을 더해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살렸다.



Pilipili Chicken



Isombe & Ugali

르완다식 푸근한 집밥
이솜베와 우갈리

이솜베와 우갈리는 가장 흔한 르완다식 '집밥'이다. 아프리카에는 음식을 한 솥 가득 만들어 온 동네 사람이 함께 나누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솜베와 우갈리야말로 그런 관습에 제격이다. 이솜베는 카사바 생잎을 갈아 넣은 뒤 토마토와 마늘, 각종 허브를 베이스로 소고기를 뼈째 푹 삶는다. 모든 재료가 푹 익을 정도로 충분히 끓으면 뼈를 발라낸 뒤 걸쭉한 소스 형태로 서빙한다. 우갈리는 우리나라의 쌀이나 국수처럼 탄수화물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보통 옥수수나 카사바 가루에 물을 넣고 치대 만든다. 옥수수로 만든 우갈리가 백설기 같은 부드러운 식감이라면, 카사바를 넣고 만든 우갈리는 찰떡처럼 쫄깃쫄깃한 게 특징이다. 키자미테이블에서는 우갈리를 경단처럼 빚어 이솜베와 함께 플레이팅한다.

맥주 안주로 안성맞춤, 단백질 한 꼬치
브로셰트

아프리카 전역에서 즐겨 먹는 숯불 직화 꼬치 요리를 총칭한다. 브로셰트는 프랑스어로 막대기이자 꼬치구이 요리를 뜻한다. 중동권에서 '케밥'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웬만한 르완다 식당에서 찾을 수 있는 음식이며,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별미로 취급된다. 대표적인 르완다 맥주 '프리머스'를 비롯한 맥주 브랜드의 네온사인이 있는 동네 펍에서 만날 수 있는 인기 안줏거리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한국에서 흔히 먹는 닭이나 돼지고기보다 염소고기와 소고기가 흔하기 때문에 염소고기나 소고기 브로셰트가 보편적이다. 양파, 피망, 버섯, 파프리카 등의 채소와 고기를 함께 곁들여 먹으며,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가게마다 특제 소스로 맛을 낸다. 키자미테이블에서는 매콤한 맛을 내는 필리필리 소스를 더한다.



Brochette

꿈은 이루어진다!

새내기 사원들의 좌충우돌 입사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살면서 숱하게 만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아일지 모른다. 오늘 만난 코이카 25기 사원 3명은 2018년 하반기 공채 입사에 성공한 신입 직원들. 각자가 품고 있는 원대한 꿈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그들을 만나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더 강한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자회사 상생협력팀 유현정 직원

"코이카,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업품질성과관리팀 전지현 직원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월드프렌즈사업팀 정보성 직원

Q 입사 후 코이카 직원으로서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보성 취준생, 대학생 시절에는 개발협력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맡은 업무를 통해 중기전략을 달성하면서 보다 고차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이카 직원으로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현정 저는 과거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에서 무기직으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소감이 남다릅니다. 코이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이긴 하지만 맡은 역할이 명확하다 보니 책임감도 확실히 가중되기는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제 업무는 물론 전반적인 업무를 아우르며 주변도 같이 살펴야 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현 코이카 구성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분위기, 파이팅 넘치는 활력이 좋습니다. 특히 저희 팀은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정말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저 역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취준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입사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현정 코이카는 영어와 논술 답안을 100분 동안 모두 써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영어는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봤을 때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중급 단어를





쓰더라도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 영문판과 번역판이 있는 코리아헤럴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지현 영어는 영한-한영 번역을 모두 시간 안에 해내야 합니다. 채점자가 글을 읽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뜻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신문기사를 요약하면서 공부했습니다. NCS는 홈페이지에 문제 유형과 예시 등이 굉장히 잘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했습니다.

보성 저는 논술을 준비할 때 개요 쓰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논술은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출제 예상 이슈를 정리해 준비했습니다. 논술의 근거 자료는 출처가 분명해야 하는데, 코이카 홈페이지에 매우 잘 나와 있어서 많이 참고했습니다.

Q 면접은 어땠나요? 가장 힘든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현정 면접 때는 자기소개를 기반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면접 전에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회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지 물어보는 게 면접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성 1·2차 면접 모두 떨렸지만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질문에 답변할 때는 입사 후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매력을 발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저의 과거·현재·미래를 답변 안에 함께 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현 저는 면접 스터디를 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혼자였다면 몰랐을 정보와 지식을 얻었고, 다른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면접을 준비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다잡아준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면접 중에는 압박 질문도 있는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담담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코이카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보성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코이카 직원으로서 내가 꿈꾸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중시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과 생각이 입사 후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과 생각을 토대로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코이카의 일원이 되어 협력단에서 만나 즐겁게 인사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현정 저는 입사 전에 이미 코이카에서 무기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채에 도전한 이유는 더 많은 ODA 분야를 경험해보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원한다면 꾸준히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체력 관리에 신경 쓰며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현 두 분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직을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를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았고, 고민 끝에 코이카를 결정한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이 기관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큰 동력이 됩니다.

현정·보성·지현 취업준비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행정과 사업 사이의 절묘한 균형 잡기

코이카 감사실

감사(感謝, thanks)가 아닌, 감사(監査, audit)가 주는 무게는 만만치 않다. 특히 조직 내에서 감사실이란 와락 반갑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싶은, 어려운 부서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코이카 감사실은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때로는 따듯한 마음으로 '청렴코이카'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이 똘똘 뭉친 곳이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감사실' 하면 으레 '잘못을 찾아 처벌하고 겁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코이카 감사실은 본인들의 업무가 조직에 "예방주사를 놔주는 역할"이라고 말한다. "잘못했지?" 추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곳인 것이다.

감사실의 주요 업무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사내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사 및 징계, 사후 처리도 담당한다. 또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감사 수감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사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이카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각 공공기관의 청렴 정도를 내·외부 관계자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껑충 뛰어오른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코이카는 2년 연속 우수 등급 2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자체감사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며, 코이카 내부의 부서업무협조도 조사에서도 감사실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런 일련의 결과는 코이카의 건실함을 대외적으로 증거하는 동시에 감사실이 투명하고 청렴한 코이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후배 톡톡 Talk Talk!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선후배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통해 알고보면 재미있는 감사실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자.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 과장 저는 2011년도에 코이카에 입사했습니다. 홍보실, 정책총괄실, 중남미실을 거쳐 현재 감사실에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어려워도 재밌게 일하자'라는 감사실의 모토에 맞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권 직원 코이카에 입사한 뒤 첫 발령으로 이곳 감사실에 배치됐고, 현재 부서의 막내로서 감사와 청렴 업무 지원, 행정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감사실에 발령받았을 때는 감사 업무와 관련한 법률이나 회계 분야 경험이 전무했던 터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규정을 다루다 보니 복잡한 규정을 좀 더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김지영 과장



권율 직원

Q 감사실은 어떤 곳인가요?

김 과장 감사실은 예방과 처방의 역할을 합니다. 코이카 소속 직원으로서 내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뿐 아니라 외부의 시선으로도 조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외부에서는 감사실이 매우 조용하고 엄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이 있다고 할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점뿐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다각적인 면을 팀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서로가 보완할 점, 좋은 점 등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협업이 매우 잘되는 게 큰 장점인 부서입니다.

권 직원 저는 감사실의 막내로서 늘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업무가 처음이고 상대적으로 경력이 부족한 제게도 선배님들이 거리낌 없이 많은 질문을 해온다는 것이죠. '내 의견이 과연 필요할까?'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팀원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모두가 좋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일하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한다는 것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참 큰 것 같습니다.

Q 마지막 한마디!

김 과장 사업 부서와 직원 부서 간 공조 관계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코이카가 더 멀리, 더 단단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업무에 매몰되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의 장점은 균형감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전체적인 감사실의 업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권 직원 저는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다른 관점에서 더 큰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업도 행정 업무가 한데 뭉쳐져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업무 경험이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실 업무를 통해 앞으로의 업무에 도움이 될 이력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 따뜻한 글로벌 인재가 자라날 토양을 다지다

코이카 개발협력인재양성팀

시대가 흐를수록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청년 인재를 선발하고 키워내는 팀이 있다. 바로 개발협력인재양성팀이다.

글 강나은 **사진** 이성원

개발협력인재양성팀은 작년 7월 코이카 전사 조직개편 때 신설된 팀으로,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인재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종료 이후에도 개발협력 분야에 지속해서 진출하도록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팀이다.

코이카는 별도의 경력사다리제도를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데, 개발협력인재양성팀은 경력사다리 1·2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당해 운영하고 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영프로페셔널(YP), KOICA-UNV 대학생봉사단과 2단계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터, 다자협력전문가(KMCO)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모집 선발 업무부터 파견 전 교육, 활동 관리, 평가, 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 청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개발협력 분야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해외 근무 경험 및 네트워킹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개발협력인재양성팀 직원 3명이 해외사무소 YP, 국내 사업수행기관 YP, KOICA-UNV 봉사단원 출신일 정도로, 개발협력인재양성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력을 통해 이후 개발협력 분야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선후배 톡톡 Talk Talk!

사랑이 넘치는 개발협력인재양성팀 팀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개발협력인재양성팀을 더욱 파헤쳐보자.



김은총 대리



장원준 직원



정가영 직원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 대리 저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 인재를 선발한 뒤 국제기구에 최대 2년간 전문가로 파견해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KMCO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 직원 올해 3월 입사해 개발협력인재양성팀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코이카에서 해외 각지로 파견하는 봉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봉사단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를 돕고 있어요.

정 직원 저도 올해 3월에 입사했어요. KOICA-UNV 대학생봉사단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에 위치한 UN 산하기관에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UNV 봉사단 1기 출신인데요, 이렇게 UNV 봉사단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해 더욱 뿌듯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개발협력인재'란 무엇인가요?

김 대리 개발협력인재란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로, 코이카에서는 개발협력인재상을 3P(Professionalism, Practice, Passion)로 설명합니다. 이론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 현장 중심의 업무에 강한 인재,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 있는 인재죠.

Q 개발협력인재양성팀의 업무 특성이 궁금합니다.

김 대리 각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을 파악해 개선해나갈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제 노력을 통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지고, 파견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 특히 보람이 크죠.

정 직원 개발협력인재양성팀은 모집 선발부터 최종 선발, 파견 경비 지급, 종료와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동시에 돌아가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장 직원 한국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력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바로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24시간 동안 각 국가에서 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는데, 시차 때문에 바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코이카가 생각하는 '좋은 인재'란 무엇인가요?

김 대리 개발협력 분야 8대 핵심 역량을 문제 해결 역량, 조사분석 역량, 외국어 역량, 개발협력 전문 역량, 프로젝트 관리 역량, 업무수행 전문 역량, 세계시민 역량, 커리어 개발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꾸준히 개발하는 인재가 좋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의 역량이 향상되도록 돕는 것은 저희의 몫이겠죠.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

해외봉사를 위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바로 봉사단원들의 첫걸음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이곳'이 있다. 국제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곳, 대한민국 해외 봉사활동의 요람! 바로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이다.

글 남지연 **사진** 원상희

2015년 8월 개원한 영월 글로벌인재교육원은 개발도상국으로 파견되는 코이카 해외봉사단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다. 해외봉사단이 봉사활동을 위한 소양을 갖추고,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의 현장 활동가로, 그리고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정부는 분산되어 있던 각 행정부처의 해외봉사단 사업을 '월드프렌즈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고, 이에 글로벌인재교육원은 각 정부부처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드프렌즈코리아 사업의 통합교육을 주관하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든든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현재 영월과 서울에 교육원을 두고 개발도상국에 파견되는 봉사단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단원을 해외에 파견하기 전 국내 교육은 물론 파견 후 현지 적응 교육과 역량 평가 등 해외봉사단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글로벌인재교육원은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이 정식 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단원들은 짧게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해외로 나가 본인들이 어떤 기관, 어떤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며 가치 있는 봉사활동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간다.



선후배 톡톡 Talk Talk!

영월 글로벌인재교육원 선후배의 이야기를 통해
끈끈한 동료애로 뭉친 글로벌인재교육원을 속속들이 살펴보자.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 과장 저는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봉사단원들이 받는 교육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주간의 국내 교육뿐 아니라 봉사단원들이 현지에 도착한 후에 받는 8주간의 현지 적응 교육에 대한 표준 커리큘럼을 만들고 조정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 직원 저는 글로벌인재교육원이 위치한 이곳 영월군에서의 사회공헌활동(CSR)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코이카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중점을 두고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CSR을 기획합니다.


김상우 과장


안진희 직원

Q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 단원들은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나요?

김 과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현지에서 언어를 원활하게 구사해야 현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파트너 국가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교육하고, 해외봉사 단원이 갖추어야 할 소양, 현지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교육, 그리고 봉사정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또 봉사단원들이 지역 전문성을 갖춰 귀국 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의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김 과장 이곳에서 하는 교육 내용 중에는 아직 해외 경험이 없는 예비 봉사단원들이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단원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며 '아, 이것이 꼭 필요한 교육이었구나'하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안 직원 저는 CSR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지역상생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개발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육생들과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고되고 힘들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진심을 다해 노력하니 지역민들도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더 큰 마음을 주시는 걸 느낄 때 보람이 큽니다.

Q 해외봉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과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해외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불안함보다는 해외봉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한층 성장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도전한다면, 그 사이에 놓인 어려움은 충분하게 지원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시작해보셨으면 합니다.

안 직원 삶의 방향을 고민하던 많은 분이 해외봉사를 마치고 돌아와 의미를 찾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봉사'라는 의미 있는 시간도 보낼 수 있지만 본인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큰 경험이 되기 때문에 만약 고민하고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무엇이든 첫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개발도상국에 더 큰 미래를 키울 ‘씨앗’을 선물하는 곳

코이카 연수사업실

연수 사업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가시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개도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미래가 될 분야별 현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적 역량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연수사업실에서 느끼는 보람과 의미가 크다. 현지 전문가들은 ‘미래’라는 큰 선물을 받고 각국에 돌아가 많은 이에게 선물을 풀어놓는다.

글 강나은 **사진** 원상희

코이카 연수사업실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연수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정책 입안자, 공무원, 기술 인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의 개발 경험, 기술, 지식,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당 분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쟁력 있는 개발협력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인원만 해도 연간 4,000~5,000명이며, 지금까지 누적 인원은 7만8,000명에 달한다. 수많은 이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위해 연수사업실에서는 수원국 개발 수요에 부합한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 성과가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식 확산 활동, 현장 사업 등을 확대해 수원국 맞춤·주도형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또 정부부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비교 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 수원국 공통의 개발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수 사업은 해외 각지에서 훌륭한 리더를 성장시켰고, 이러한 리더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개혁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 연수사업실은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에 희망을 심는 ‘희망농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선후배 톡톡 Talk Talk!

연수사업실 팀원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연수사업실에 퍼지는 활기찬 웃음의 근원지를 살펴보자.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리 2013년 코이카에 입사해 현재 연수사업실의 성과 관리 및 평가 그리고 예산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18개의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등 다양한 연수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연수를 기획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직원 저는 입사한 지 2년 차가 되었는데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국별 연수 사업, 교육 분야 다국가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또 연수 사업의 매뉴얼인 길라잡이 개선을 통해 다양한 파트너가 연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시온 대리


이지혜 직원

Q 업무를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대리 국제기구는 기구별로 요구하는 문서가 모두 다르고, 그 양도 많습니다. 의사소통 방식도 코이카와 차이가 있다 보니 코이카의 입장을 잘 대변하면서 각기 다른 요구 조건을 서로 조율해나가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 직원 하나의 연수 사업에는 연수기관, 지원기관, 수원기관, 코이카 현지 사무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 다른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조율 과정에서 시각차 때문에 의도치 않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연수 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아서인지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연수사업실에는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잘 어울릴까요?

이 대리 연수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인 만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 연수생의 돌발행동, 사고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역량이 있다면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이 직원 아무래도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연수사업실에 제격일 것 같아요.

Q 연수사업실 자랑 한마디!

이 대리 연수사업실은 코이카 내에서도 분위기가 좋은 부서로 손꼽힌다고 자부합니다. 좋은 실장님과 실원들 그리고 함께하는 연수 모니터링 인턴들까지 뛰어난 실력과 따뜻한 마음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수사업실은 업무를 하면서 수원국 인재들의 성장을 직접 볼 수 있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원 저 역시 연수사업실은 각국의 연수생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현장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각국의 여러 사업을 다루다 보니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이시온 대리가 말했듯이 수평적이고 열린 분위기가 저희 실의 자랑입니다.

꽃으로 뒤덮인 폐허

티파사

TIPASA

글 코이카 알제리 사무소







‘알제리’라는 이름을 소리 내어 발음해보면 혀끝엔 황량한 사막의 모래바람과 너울거리는 베일의 맛이 느껴진다. 우리에겐 너무나 생소한 이름, 카뮈로 대표되는 태양과 신비의 나라. 수많은 여행 프로그램에서 단 한 번도 방영된 적 없는 그 비밀스러운 나라에 코이카 알제리 사무소가 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초승달과 모스크의 나라 알제리에 남아 있는 로마 유적 ‘티파사’다. 알제에서 서쪽으로 70km 떨어진 ‘티파자(Tipaza)’는 1857년에 생겨난 도시의 이름이고, 그 도시에 위치한 ‘티파사(Tipasa)’는 이 로마 유적을 말한다. 그 뜻은 로마어로 ‘기항지’를 뜻하는데, 기원전 6세기에서 2세기 사이 고대 카르타고의 무역항이었으며, 로마 정복 이후에 로마 정착촌이 생겨났다.

티파사는 이렇게 고대 로마, 카르타고, 페니키아, 비잔틴 문화양식이 남아 있는 유적지로, 198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 소홀 탓에 2002년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를 말해주듯 빛바랜 돌들은 발가벗은 채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방인>으로 유명한 카뮈는 그의 작품 <티파사에서의 결혼>에서 티파사를 이렇게 묘사했다.

“봄철에 티파사에는 신들이 내려와 산다. 태양 속에서, 압생트의 향기 속에서, 은빛으로 철갑을 두른 바다며, 야생의 푸른 하늘, 꽃으로 뒤덮인 폐허, 돌 더미 속에서 굵은 거품을 일으키며 끓는 빛 속에서 신들은 말한다.”

- 티파사에서의 결혼

“Au printemps, Tipasa est habitée par les dieux et les dieux parlent dans le soleil et l'odeur des absinthes, la mer cuirassée d'argent, le ciel bleu écru, les ruines couvertes de fleurs et la lumière à gros bouillons dans les amas de pierres.”

- Noces à Tipasa

4월의 봄, 우리는 티파사에 발을 딛자마자 카뮈가 왜 이곳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새파란 하늘, 눈이 시리게 은빛으로 빛나는 지중해는 마치 거대한 신전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아우르는 것은 알제리의 뜨거운 태양과 열기였다. 봄에도 작열하는 태양은 로마의 석조 건물들을 주황빛으로 감쌌고, 그 안에 피어난 꽃들이 옛 로마의 땅을 정복했다.



불타는 카르타고를 보며 로마 장군 스키피오는 불타는 로마를 보았다고 했다. 어쩌면 그 모습이 태양에 물든 티파사와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 이 땅을 지배하던 로마는 자신이 멸망시켰던 카르타고처럼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연약한 생명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쇠퇴해버린 고대 도시의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카뮈는 이러한 감정을 ‘꽃으로 뒤덮인 폐허’라고 묘사했을 것이다.

이제는 이교도의 땅이 되어버린 이곳에 로마의 성당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바실리카’란 본래 고대 로마인들의 공공건물을 지칭하는데, 대부분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는 초기 기독교 건축양식으로 매우 유서 깊은 유적이다. 과거에는 신의 영광을 바치고 있었을 성당의 아치 기둥은 하나의 액자가 되어 티파사의 풍경을 품고 있었다.

성당 바닥을 따라 걷다 보면 카뮈 기념비를 만날 수 있다. 그 비석에 카뮈는 이런 글귀를 남겨놓았다.

“여기서 나는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그것은 거리낄 것 없이 사랑할 권리이다.”

“Je comprends ici ce qu’on appelle glorie : le droit d’aimer sans mesure.”

티파사의 풍경을 뒤로하고 떠나려는 길, 우리는 푸른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을 만났다. 그는 티파사 발굴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고고학자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어루만졌을 돌 위에 걸터앉아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유적을 만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마지막에 본 풍경은 이러했다. 두 연인의 사랑과 이 장소를 사랑하는 고고학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카뮈가 비석에 새겨놓은 ‘거리낄 것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권리’일 것이다. 이곳에 방문한 우리 또한 이 장소를 사랑하게 되었고, 푸른 하늘과 태양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렸다.

필리핀의 풍미를 우리 집 식탁에서 즐기다

필리핀 음식 만들기

필리핀은 보라카이나 세부 등 이름만으로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가득한 나라다.
맛깔나는 음식도 많아 먹는 재미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필리핀 현지의 맛과 멋을 담은 황홀한 필리핀 음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글 남지연 **사진** 이성원 **진행** KOICA 지구촌체험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볶음밥

나시고렝

나시고렝은 2017년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50대 요리'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인에게 사랑 받는 메뉴다. 냄새만으로도 우리를 인도네시아로 데려다줄 나시고렝을 함께 만들어보자.







재료

주재료

식용유 30g, 닭 가슴살 50g, 새우 50g, 식은 밥 한 공기 200g, 달걀 3개, 케첩 마니스 15g, 쪽파 10g, 튀긴 샬롯 10g, 숙주나물 30g

삼발 소스

샬롯 1개, 레몬그라스 1/4개, 건고추 2개, 마늘 5g, 피시 소스 5g, 파프리카 20g, 토마토 퓌레 5g

만드는 방법

❶ 웍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해산물 등 원하는 재료를 볶아 다른 그릇에 옮겨둔다.
❷ 삼발 소스 재료를 한데 갈아 페이스트를 만든 뒤 웍에 넣고 갈색이 날 때까지 볶는다.
❸ ②의 페이스트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달걀물을 넣어 익힌 뒤 페이스트와 섞는다.
❹ ③에 ①의 고기를 넣고 볶은 뒤 식은 밥을 넣고 한 번 더 볶는다.
❺ 케첩 마니스와 소금, 후추로 간한 뒤 숙주를 넣어 충분히 볶는다.

재료 설명

케첩 마니스 케첩 마니스는 인도네시아식 달콤한 간장 소스다. 굴소스와 간장, 설탕 등을 넣어 대체가 가능하지만 케첩 마니스를 사용하면 인도네시아 현지의 맛을 낼 수 있다.

샬롯 샬롯은 우리나라의 양파, 마늘과 비슷한 채소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니 양파'라고도 부른다. 샬롯을 직접 튀겨 사용해도 되고, 시판하는 드라이 칩을 구매해 사용해도 된다.

삼발 소스 보통 나시고렝에 들어가는 주재료 중 하나. 매운맛을 내는 소스로, 여러 가지 향신료를 으깨어 만든다. 붉은색을 내는 역할도 하는데, 아이들이 먹기에는 다소 매울 수 있어 이번 레시피에서는 매운 고추 대신 붉은 파프리카를 사용했다.

코코넛의 달콤함을 담은

부코파이



필리핀 북부의 라구나주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지역 특산 먹거리인 부코파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메뉴지만 한번 맛보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마성의 부코파이를 만들어보자.

재료

주재료 중력분 200g, 버터 140g, 소금·설탕 각각 2g, 물 적당량
코코넛 필링 레몬즙 5g, 전분 18g, 코코넛워터 18g, 생크림 18g, 설탕 18g, 코코넛 과육 20g, 연유 5g, 달걀물 약간



만드는 방법

❶ 실온에 둔 버터를 풀어준 뒤 중력분, 소금, 설탕을 넣고 잘 섞은 다음 찬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반죽한다.
❷ ①의 반죽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30분 정도 휴지시킨다.
❸ 냄비에 코코넛 필링 재료를 넣고 약불에서 잘 저어주며 조린다.
❹ 휴지시킨 반죽을 약 5mm 두께로 밀어준 뒤 반으로 나눠 각각 바닥과 뚜껑으로 사용한다. 이때 뚜껑 반죽은 모양을 내기 위해 길게 잘라둔다.
❺ 바닥 반죽을 파이 틀에 깐 뒤 포크로 구멍을 내고 식힌 코코넛 필링을 담는다.
❻ 뚜껑 반죽을 덮은 뒤 달걀물을 발라 200℃ 오븐에 10분 정도 구워낸다.

달콤하고 시원한 홈메이드 아이스케이크

망고플롯



열대 과일의 천국인 필리핀은 망고가 맛있기로 유명하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망고, 필리핀 현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즐길까? 망고를 이용한 필리핀 전통 디저트 망고플롯을 소개한다.



재료(2인분 기준)

통밀쿠키 50g, 생크림 100g, 연유 30g, 망고 1개

만드는 방법

❶ 통밀쿠키를 비닐 팩에 넣고 잘게 부순다.
❷ 망고 1개를 잘라 으깬다.
❸ 생크림을 거품기로 젓다가 약간 되직해지면 연유를 넣고 저어 크림을 단단하게 만든다.
❹ 유리컵에 '잘게 부순 통밀쿠키 - 연유와 생크림 - 으깬 망고' 순으로 차곡차곡 쌓는다.
❺ 생크림이 쿠키에 스며들어 부드러워지도록 냉장고에서 최소 30분에서 2시간 가량 숙성시킨다.

2019

평화 & SDGs 세계시민 축제

Stand Together Now

9.21(토) – 9.22(일)

국회 앞 광장

Stand Together NOW for a Peaceful, Just & Sustainable World

기념행사 K-POP 콘서트, SDGs Action Campagin 등

부대행사 퍼레이드, 플래시몹, 평화놀이터 등

부스운영
- ODA존 (국제개발협력 홍보 부스, 파트너 홍보 부스)
- SDGs존 (SDGs 전시 부스, SDGs 주제 체험교육 부스)
- 세계시민존 (참여 NGO 홍보/체험교육 부스, 문화체험 부스)
- 청년참여존 (해외진출 상담 부스 등)

기타 프로그램 홍보 & 이벤트 프로그램 실시

협력_ NGO, 민간, 대학, 지자체,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 등
대상_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대학생, 일반 시민




KOICA
한국국제협력단